▶내신 기출 문학 지학사-상편◀

1. 문학의 본질과 가치

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36문제)----------1쪽
② 두근두근 인생 (32문제)----------16쪽
③ 흰 바람벽이 있어 (33문제)----------37쪽
④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43문제)----------54쪽
⑤ 광장 (15문제)----------84쪽

2. 문학의 소통

① 산도화 (33문제)----------94쪽
② 흥보가 (43문제)----------110쪽
③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34문제)----------138쪽
④ 즐거운 편지 (38문제)----------159쪽
⑤ 로디지아발 기차 (2문제)----------177쪽
⑥ 허생전 (38문제)----------183쪽
⑦ 남한산성 (14문제)----------207쪽
⑧ 총, 꽃, 시 (17문제)----------219쪽
⑨ 만화 토지 (2문제)----------232쪽

3. 한국 문학의 성격

① 어미 말과 새끼 말 (9문제)----------235쪽
② 송인 (26문제)----------245쪽
③ 사미인곡 (32문제)----------257쪽

◆빠른 전체 정답----------275쪽
◆정답----------278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산도화" 분석 정리

산은

구강산(九江山)
이상향, 탈속적 공간
보랏빛 석산(石山)
신비로운 분위기

원경-정적 이미지
▶ 보랏빛 석산의 신비로운 모습

산도화
동양적 이상향의 이미지
『두어 송이
여백의 아름다움
송이 버는데』
『 』: 구강산이 봄을 맞아 생기를 회복하는 모습

봄눈 녹아 흐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옴.
옥 같은
물에
맑고 순수한 이미지

▶ 두어 송이 피어나는 산도화

근경-동적 이미지
→ 정중동(靜中動)의 동양적 세계관

▶ 봄눈 녹아 흐르는 물

사슴은
암사슴 —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
발을 씻는다.
평화로운 분위기

▶ 발을 씻는 암사슴

핵심 판서 자료

시어의 상징적 의미

시어	함축적 의미
구강산	•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공간, 이상향 • 인간 세계로부터 떨어진 탈속적 공간
산도화	• 동양적 이상향의 상징물 • 생명 탄생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
암사슴	• 자연적 존재,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 • 생동하는 생명체의 모습

1. 이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있는 이미지	⇨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석산, 봄눈		산도화, 물, 암사슴

신비한 생명력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도는 공간을 만들어 냄. — '보랏빛'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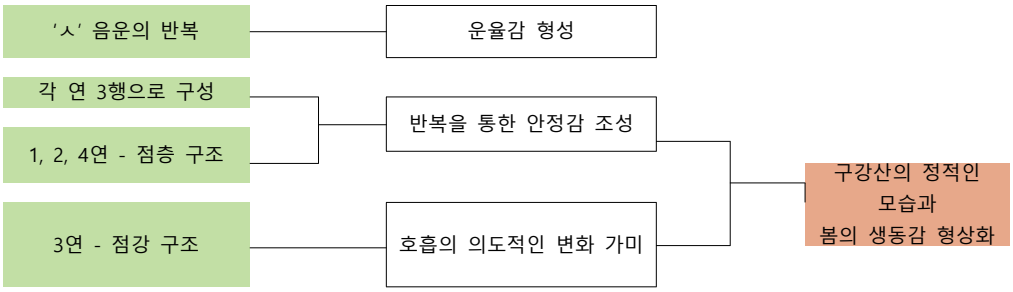
2. 「산도화」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시에서는 다양한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색채 이미지는 봄을 맞은 구강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1연	보라색(석산) → 신비로움.
2연	분홍색(산도화) → 아름다움과 봄의 생기가 느껴짐.
3연	흰색(옥 같은 물) → 맑고 깨끗함.

3. 이 작품의 의 운율과 그 효과

시는 '산', '산도화', '송이', '사슴'에서 'ㅅ' 음운이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각 연이 3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형식적 통일성을 보이고 있으며,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점층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정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감은 '구강산'의 정적인 모습과 잘 어울려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3연은 첫 행이 가장 길고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점강 구조를 취하고 있어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인 변화를 가미함으로써 '봄눈'이 녹아 흐르는 빠른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이른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시에서 그리고 있는 풍경은 석산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산도화 두어 송이, 눈 녹은 물, 그 물에 발을 담가 보는 사슴 한 마리가 전부이다. 이는 많은 것을 그리기보다 여백을 통해 정취를 자아내는 동양화와 관련이 깊다. 특히 '산도화 두어 송이'에서 여백을 중시하는 동양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형을 구성한 이 시의 형식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여백의 함축을 지향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5. '사슴'을 등장시킨 이유

3연과 4연에서 묘사되는 풍경은 따스한 봄날 눈이 녹아서 흐르는 시내의 모습이다. 그 맑고 시원한 물에 암사슴이 발을 씻고 있다. 이러한 정경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발을 씻고 있는 암사슴의 생동하는 생명의 자태를 나타내면서 정중동(靜中動)의 동양적 세계관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간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인 암사슴을 등장시켜 '봄눈 녹아 흐르는 물에 발을 씻는' 행위를 그려 냄으로써 더욱 평화롭고 고결한 느낌이 들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암사슴의 등장은 그 속성과 행동을 통해 이상향인 선계(仙界)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산도화" 작품 활용 연구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 전개와 분위기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1) 각 연이 묘사하고 있는 중심 대상을 정리해 보자.

중심 대상	1연	보랏빛을 띤 석산
	2연	두어 송이 피는 산도화
	3연	봄눈 녹아 흐르는 시냇물
	4연	발을 씻는 암사슴

(2)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과 관련 있는 시어들을 찾아보자.

산도화, 봄눈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이미지에 관해 탐구해 보자.

> 이 시에는 대조적인 두 가지 성격의 이미지가 묘하게 어울려 있다. 하나는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생명력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도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낸다.
> 또한 이러한 공간은 보랏빛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보랏빛은 모호하고 신비한 느낌을 준다. 그런가 하면 정지된 느낌과 움직이는 느낌,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준다. 보랏빛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색깔이며, 비현실적인 색깔이다.
> - 이남호, 『이 쓸쓸한 뜰에 저 어지러운 구름 그림자』 에서

(1) 이 작품에서 ㉠, ㉡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찾아 써 보자.

㉠	㉡
석산, 봄눈	산도화, 물, 암사슴

(2) 1연 3행의 '보랏빛'을 '연둣빛'으로 바꿔 읽어 보고, 작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보랏빛'을 '연둣빛'으로 바꾸면 봄의 생명력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구강산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사라진다.

3. 이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에 관해 생각해 보자.

(1) 동일한 음운을 포함한 시어의 반복을 찾아보고,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산', '송이', '사슴'에서 'ㅅ' 음운이 반복되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각 연을 이루는 행의 길이에 관한 설명이다. 잘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 이 시의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대체로 점점 길어진다. 그런데 3연만 첫 행이 가장 길고,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______(으)로 인한 안정감을 주면서,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인 ______을/를 가미하여 이른 봄의 생동감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4. 다음 글에서 언급한 '여백의 함축'을 매개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 나는 이 작품에서 첫 두 연을 좋아했다. 보랏빛 석산과 가지만 앙상하게 빳빳한 산도화의 담담(淡淡)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 점 띄워 동양화적인 정취를 풍기려 했으며, 이 여백의 함축은 내 시의 본질적인 일면이다.
> - 박목월, 「보랏빛 소묘」 에서

시에서 그리고 있는 풍경은 석산에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산도화 두어 송이, 눈 녹은 물, 그 물에 발을 담가 보는 사슴 한 마리가 전부이다. 즉 많은 것을 그리기보다 여백을 통해 정취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여백의 미는 극도로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형을 구성한 이 시의 형식적 측면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여백의 함축을 지향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5. 다음 작품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山
절망의산,
대가리를밀어버
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산, 사랑의산, 침묵의
산, 함성의산, 증인의산, 죽음의산,
부활의산, 영생하는산, 생의산, 회생의
산, 숨가쁜산, 치밀어오르는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산, 꿈의산, 그러나 현실의산, 피의산,
피투성이산, 종교적인산, 아아너무나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산, 힘센산, 일어나는산, 눈뜬산, 눈뜨는산, 새벽
의산, 희망의산, 모두모두절정을이루는평등의산, 평등한산, 대
지의산, 우리를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감싸주는어머니

- 황지우, 「무등(無等)」

(1)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위 작품이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배열하여, 시의 형태 자체가 산의 모양을 닮도록 구성하였다.

(2) 다음은 위 작품에 관한 설명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지닌 유기적 연관성을 발표해 보자.

-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 이 시의 제목인 '무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등급이나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다.

이 시는 시각적으로 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은 하산의 과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산의 속성에 관한 진술들이 '절망', '분노' 등 부정적인 속성의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희망', '평등' 같은 긍정적 속성의 진술들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수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점차 수평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하산의 과정에 대응된다. 또한 작품의 제목인 '무등' 역시 시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평등의 가치, 어머니의 차별 없는 사랑 같은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석산' '산도화' '봄눈' 등의 시어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② 3음보의 율격과 'ㅅ' 소리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③ 먼 풍경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었다.
④ 대상에 대한 관조적이고 탈속적인 태도로 봄 풍경을 형상화하였다.
⑤ 회화적인 기법으로 장면을 묘사하고 보라색의 이미지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위 시와 <보기> 시의 공통점으로 볼 수 <u>없는</u> 것은?

<보기>

머언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① 간결한 시어와 시행 배열로 여백의 미를 강조한 동양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② 중간에 시행 길이를 달리 하고 호흡에 변화를 주어 봄의 생동감이 표현되었다.
③ 함축적 의미가 대비되는 색채를 통해 산뜻한 봄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④ 균등한 시행 배열로 안정감을 주고 주로 전통적 3음보 율조를 사용하여 편안함을 준다.
⑤ 행 길이의 조절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 2연, 4연의 점층 구성은 '산'의 모습과 어울려 안정감을 준다.
② 3연의 점강 구성은 호흡의 의도적인 변화로 이른 봄의 생동감을 환기한다.
③ 1연의 '석산', 3연의 '봄눈'은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④ 2연의 '산도화', 4연의 '암사슴'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⑤ 1연·4연과 달리 2연·3연은 신비한 생명력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도는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에 구현된 '동양적 여백의 미'와 관련이 <u>없는</u> 설명은?

①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② 인상적인 장면을 위주로 제시한다.
③ 관조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한다.
④ 각 연을 3행으로 구성하여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⑤ 수식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결한 시어를 구사한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한성고등학교 (서울)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역설적 표현으로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② 원근(遠近)의 변화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4음보의 율격을 띠고 있다.
④ 차갑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의 시어가 주로 나타난다.
⑤ 보랏빛을 통해 현실적 공간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6. 위 시의 '보랏빛'을 '연둣빛'으로 바꾸었을 때의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극복 의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생성된다.
② 봄의 생명력이 더 강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신비로운 분위기의 느낌은 사라진다.
③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연의 이미지가 두드러져 주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④ 정중동(靜中動)의 동양적 세계관의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⑤ 동일한 음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극대화되는 변화가 생긴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위 시의 각 연을 이루는 행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시의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의 길이가 대체로 점점 길어진다. 그런데 3연만 첫 행이 가장 길고,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

① 서정적 자아의 심리 변화를 시행의 장단과 연계하여 정서적 공감을 획득한다.
② 독자들의 정서적 긴장과 이완을 도모하고 서정적 자아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③ 화자의 시선 이동을 시행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 아울러 계절의 변화를 드러낸다.
④ 서정적 자아의 내적 갈등과 해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시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⑤ 호흡의 의도적 변화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세교고등학교 (경기)

8. <보기>를 참고하여 여백의 함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윗글의 형식적 특징 <u>두 가지</u>를 각각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나는 이 작품에서 첫 두 연을 좋아했다. 보랏빛 석산과 가지만 앙상하게 빳빳한 산도화의 담담(淡淡)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 점 띄워 동양화적인 정취를 풍기려 했으며, 이 <u>여백의 함축</u>은 내 시의 본질적인 일면이다.

- 박목월, 「보랏빛 소묘」

광주인성고등학교 (광주)

9. 위 시의 운율적 특징을 <보기>에서 <u>모두</u> 고른 것은?

<보기>

ㄱ.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ㄴ.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구사하고 있다.
ㄷ. 같은 모음이 반복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다.
ㄹ. 행 길이를 일정하게 하여 낭독의 규칙성을 확보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흥보가" 핵심 정리

● 제재 연구

갈래	판소리 사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제재	흥보네의 박타기
주제	• 선행 덕에 복을 받아 가난을 벗어나게 된 흥보네(권선징악) • 빈부의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
특징	• 산문적 진술과 운문 투의 리듬감 있는 서술이 혼재함. • 생생한 구어, 사투리, 비속어 등과 함께 한문 투의 표현들도 섞여 있는 등 중층적 성격의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음. • 창과 아니리를 계속 교차하면서 서사를 진행시키고 정서도 표출함. • 과장과 해학적 표현이 두드러짐.

1.'창' 부분에서 장단의 사용과 그 효과

부분	장단	장단의 사용 효과
<가난타령>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해 줌.
<흥보 아들 수모>	중모리	조금 느린 중모리를 사용해 흥보 아들이 수모를 겪은 사연을 서술함.
<흥보 첫째 박을 탐>	진양조	가장 느린 진양조를 사용해 흥보의 신세 한탄과 배고픔을 애절하게 표현함.
<흥보 첫째 박을 탐>	휘모리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를 사용하여 박을 빠르게 타는 상황을 긴박감 있게 드러냄.
<쌀과 돈이 든 궤짝이 나옴>	휘모리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 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계속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 흥보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함.
<흥보 밥타령>	자진모리	빠른 장단인 자진모리를 사용하여 밥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명랑하게 표현함.

• '창'의 성격과 역할 :
-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여 표현함.
-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하여 사용됨.
- 장면을 확대 부연, 극대화하여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 몰입케 하고, 청중의 감흥을 유발함.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

2. 해학적 표현의 성격과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

해학적인 표현	㉠ 어찌 떨어 부어 놨던지 돈이 일만 구만 냥이요, 쌀이 일만 구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라. →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표현 또는 많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자 흥분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말장난으로 볼 수 있음. 현장감과 흥을 고조시킴. ㉠ 흥보 내외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 속에 가 총 철환 박히듯 콱 박혀 가지고, 당창 벌거지 콧속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 밥 더미가 산만큼 커서 흥보 자식들이 그 속에 박혀 먹는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늘 굶주리며 지내다 많은 밥을 보고 흥분한 흥보 자식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
당대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 작품은 빈곤이라는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해학성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당대 서민들의 의식과 태도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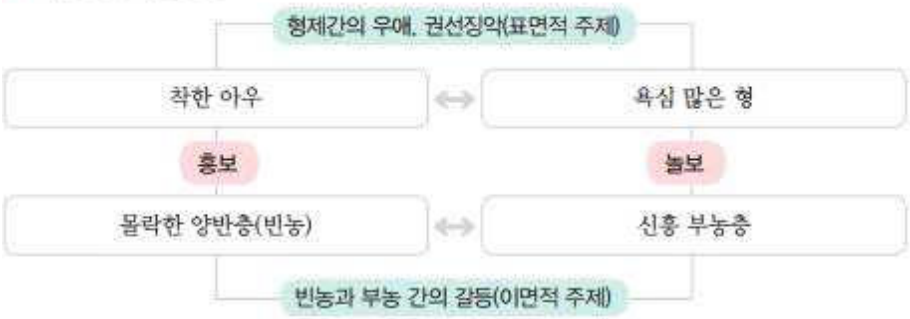
3. '아니리' 부분의 기능

'아니리'의 일부분	기능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것다.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가난의 설움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함.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찌듯 쪄서 삯꾼을 사다 져다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박 속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흥보네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잔뜩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함.

- '아니리'의 성격과 역할

-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부분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 등을 전달함.
-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창자가 호흡을 조정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줌.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

● 작품 전체의 갈등 구도



● '창'과 '아니리'의 성격과 역할

판소리에서 '창'의 성격과 역할	판소리에서 '아니리'의 성격과 역할
•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장단을 사용하여 표현함. • 다양한 장단은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하여 사용됨. • 장면을 확대 부연·극대화하여 청중이 정서적으로 긴장·몰입케 하고, 감흥을 유발함.	•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부분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함. •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창자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줌.

창과 아니리를 교체 반복하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통해 예술적 효과를 가져옴.

"흥보가" [illegible]

1. 흥보네 식구가 가난의 비참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명절이 돌아와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열일곱째 아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송편을 얻어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하고 들어온 일.

2. 박을 타기 전과 비교할 때, 박을 탄 후 흥보 내외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자.

박을 타기 전
가난한 팔자를 탓하던 흥보 내외는 박속이라도 긁어 먹어 허기를 잊고 바가지를 팔아 푼돈이라도 마련해 보려는 절박한 심정임.

박을 탄 후
박에서 쌀과 돈이 무한정 쏟아지자 크게 기뻐하면서 밥을 꾸짖는 우스개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흥에 겨움.

3. 다음을 참고하여 「흥보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판소리 사설은 '창'과 '아니리'가 연속적으로 교체되며 이야기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한다.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운문으로, 대개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창에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모리까지 다양한 장단(長短)이 있어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진양조는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다. 자진모리는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흥분과 긴박감을 준다.
>
> 한편 대체로 평범한 일상어로 구성되는 산문인 '아니리'는 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한동안 지속되던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창자가 호흡을 조정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준다.
>
> 가창 형식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긴장 - 이완'의 구조는 내용 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장한 대목에서 청중의 정서적 일치를 유도하다가 해학적인 대목에서 정서적 거리를 확보하며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을 지적할 때 흔히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다.
>
> - 조동일, 김흥규 편, 『판소리의 이해』에서

(1) '창'으로 부르는 다음 부분에서 해당 장단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작품의 내용 전개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창'으로 부르는 부분	해당 장단의 사용 효과
<가난타령>의 [진양조] 부분	흥보 마누라가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슬픔을 부각해 줌.
<쌀과 돈이 든 궤짝이 나옴>의 [휘모리] 부분	예상치 못했던 쌀과 돈이 박에서 계속 나오는 기쁜 상황에서 흥보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함.

(2) 이 작품의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다음 '아니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해 보자.

'아니리'의 일부분	기능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것다.	명절에도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가난의 설 움을 탄식하게 되는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함.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찌듯 쪄서 삯꾼을 사다 져다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박 속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흥보네 가족이 신이 나서 밥을 잔뜩 해대는 사건의 전개를 요악적 으로 서술함.

(3) 이 작품에서 비장한 대목과 해학적인 대목을 각각 하나씩 찾아, 그 대목을 들을 때 청중이 느낄 긴장의 강도가 변화하게 되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

	해당 대목	중이 느낄 긴장의 강도 변화	긴장의 강도가 변화하는 이유
비장한 대목	<가난타령>의 "가난이야, 가난이야. ~ 몹쓸 년의 팔자로다."	청중의 긴장이 고조됨.	흥보 마누라가 느끼는 가난의 설움에 청중이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되므로
해학적인 대목	<흥보 밥타령>의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 에이 손. 섭섭타. 섭섭혀!"	청중의 긴장이 해소됨.	과장된 상황 묘사가 웃음을 유발하므로

4. 다음 작품을 「흥보가」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흥부 부부가 박 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 황금 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 있는 듯이 들어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1) 위 작품과 「흥보가」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에 관해 보이는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흥보가」에서는 박을 타기 전에 흥보와 흥보 마누라가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흥부 부부상」에서 흥부 부부는 연민이나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를 물질보다 중시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난으로 인한 삶의 애환을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인다.

(2) 만약 자신이 판소리 창자가 되어 위 작품을 '창'으로 부른다면 어떤 장단으로 부를지 생각해 보고, 그 장단을 고른 까닭을 말해 보자
•우아한 맛이 있는 중중모리 장단으로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박을 타기 전에 부부가 느낄 흥취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아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흥보가" 읽기

1. 흥보 마누라는 자신이 가난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흥보 마누라는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들과 달리 팔자가 사나워서 이러한 가난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2. 흥보 마누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놀림과 모욕을 당한 아들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한 데 대한 애달픔과 연민, 불쌍함을 느끼고 있다.

3. 상황에 관한 과장된 묘사의 효과를 생각해 보자.
본래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상황과 사건을 더욱 과장되게 묘사하여 해당 장면의 흥을 고조시키고 해학성을 극대화한다.

4. 흥보가 밥에 관해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보인 까닭을 생각해 보자.
흥보는 가난으로 인해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밥이 자신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는 한편 꾸짖어 내쫓을 수 없을 만큼 간절히 원하기도 하므로 꾸짖으며 원망하기도 하고 애정 어린 말로 달래기도 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난타령

[아니리] ㉠그때는 어느 땐고 팔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 피 - 이 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흥보집은 냉랭허여 곤신풍이 디리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것다.

[진양조]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제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

(나) 흥보 아들 수모

[아니리] 이렇듯 울고 있을 적에, 흥보 열일곱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세 개만 해 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째서 하필 떡을 세 개만 해 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중모리] "엎져 기어 나갈 적에 뒤엣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그 뒤엣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담 담 놈 떨어져 앞에 와 서서, 한정 없이 기어가자 하니,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더니, 송편일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 주니, 송편 세 개만 하여 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양손에 갈러 쥐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목이 메어 하는 말이, "내 자식아. ㅉㅉㅉㅉㅉ. 무엇하러 나갔더냐? 천하 몹쓸 애들이지. 못 먹이는 이 어미는 일촌 간장이 다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리 몹시 하드란 말이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우지를 마라."

(다) 흥보 첫째 박을 탐

[아니리]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근히 취해 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늘, "여보, 이게 웬일이오? 배고픈 걸 한을 해 가지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늘어 앉어, 한평생허고라도 울어 보지마는, ㉡아, 남 보기 챙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흉볼 울음을 운단 말이오?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해 살아갑시다." 흥보 내외 박을 한 통을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 제,

[진양조]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어여루, 톱질이로고나. 몸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놈의 가난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헌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에여루 당거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중략>

[휘모리] "실건 실건, 당기어라.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건 뚝딱."

(라) 쌀과 돈이 든 궤짝이 나옴.

[아니리] <중략>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궤 뚜껑 위에가 뭔 글씨가 쓰여 있소, 예." 흥보 보더니, "음? '박흥보 씨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디." "아, 그러면 한번 열어 보시오." "㉣열어 봤다가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궂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영감, 우리가 시방 이 팔자보다 더 궂게야 되겄소? 근개 그냥 한번 열어 버리시오." "그러면 열어 볼까?" <중략>

[휘모리]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떨어 붓고 닫쳐 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쌀과 돈을 떨어 붓고 닫쳐 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가득하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떨어 붓고 나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것다. 일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니라!"

(마) 흥보 밥타령

[아니리] <중략> ⓐ동네 가마솥 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밥을 꼬두밥 찌듯 쪄서 삯꾼을 사다 져다 붓고, 붓고 한 것이, 밥 더미가 거짓말 좀 보태면 남산 더미만 하던 것이었다. 흥보가 밥 먹으라는 영을 내리는데, "네 이놈들, 체할라. 조심해 먹으렷다. 자, 먹어라!" 해 노니, 이놈들이 '우-' 하더니, 온 데 간 데가 없지. "아이고, 이놈들 다 어디 갔느냐?" 흥보 내외 자식들을 찾느라고 야단이 났는데, 조금 있다가 본깨, 이놈들이 모도 밥 속에서 튕기쳐 나오는데, 어찌하여 밥 속에서 나오는고 허니, 어떻게 밥에 환장이 되었던지 밥 속에 가총 철환 박히듯 콱 박혀 가지고, 당창 벌거지 콧속 파먹듯 저 속에서 밥을 파먹고 나오던 것이었다. 흥보는 자식들같이 그렇게 조백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 보고 인사를 하는데, 노담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밥님. 너 참 본 지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은 대면도 하기 싫지마는,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하거니와, 원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괄시한단 말이냐? 에이 손, 섭섭타. 섭섭혀!"

[자진모리] "세상 인심 간사하여 추세를 한다 한들, 너같이 심할쏘냐? 세돗집 부잣집만 기어코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 다 먹으면, 돼야지, 개를 주고, 떼 거위 학두루미와 심지어 오리 떼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아 쉬네 썩네 하지 않더냐? 날과 무삼 원수로서 사흘 나흘 예사 굶겨, 뱃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나소,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하여, 누웠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서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말라 죽게 되었으되 찾는 일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이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에라, 이 괘씸한 손, 그런 법이 없느니라!" 한참 이리 준책 터니 도로 슬쩍 달래는데, "히히히, 그것 참. 내가 이리 했다 해서 노여워 아니 오랴느냐? 어여뻐 한 말이지, 미워 한 말이 아니로다. 친구가 조만 없어 정지후박에 매였으니, 하상견지만만야요, 떨어져 살지 말자. 애개개, 내 밥이야. 옥을 준들 널 바꾸며, 금을 준들 널 바꿀쏘냐. 애개개, 내 밥이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새 정이 붙게 하느라 이런 야단이 없었구

나.

- 작자 미상, <흥보가> -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1. 위 글의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1) (마)의 밑줄 친 ⓐ의 기능을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하고, (2) 청중이 느낄 긴장의 강도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평범한 일상어로 구성되는 산문인 '아니리'는 주로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장면의 상황 설정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1) ⓐ의 기능 :

(2) 청중이 느낄 긴장의 강도 변화 :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2. 다음 <보기>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운문투와 산문투의 서술이 혼합되어 있다.

ㄴ. 양반 계층의 한문투와 평민의 비속어가 섞여 있다.

ㄷ. 과장된 표현 방법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ㄹ.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ㅁ.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장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ㅂ. 등장인물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ㄹ, ㅁ, ㅂ

⑤ ㄷ, ㄹ, ㅁ, ㅂ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3. ㉠ ~ ㉤에 대해 학생들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시간적 배경이 흥보네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

② ㉡ :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흥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③ ㉢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흥보'의 인식을 알 수 있어.

④ ㉣ :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흥보'의 계획적인 사고방식을 알 수 있어.

⑤ ㉤ : 밥을 나무라고 달래는 '흥보'의 모습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흥보'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어.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각 장면에 사용된 장단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판소리에서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운문으로, 대개 청중의 정서적 몰입을 유발한다. 창에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모리까지 다양한 장단(長短)이 있어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진양조는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다. 자진모리는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흥분과 긴박감을 준다.

① (가)는 진양조 장단을 사용하여 흥보 마누라가 느끼는 가난의 슬픔을 부각한다.

② (나)는 중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흥보 아들이 겪은 사연을 서술한다.

③ (다)는 휘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흥보 내외가 박을 빠르게 타는 상황을 긴박감 있게 드러낸다.

④ (라)는 휘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흥보가 느끼는 흥분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⑤ (마)는 자진모리 장단을 사용하여 흥보의 신세한탄을 애절하게 표현한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5. 위 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오ᄂᆞᆫ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ᄒᆞ여 놓고 쌍비목* 외걸새에 용거북 ᄌᆞ물쇠로 수기수기 줌 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ᄒᆞᆫ 돌이 셜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작자 미상 -

*뒤주 :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쌍비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① 위 글과 <보기> 모두 당대 사회의 문제를 풍자하고 있다.

② 위 글과 <보기> 모두 해학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웃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③ 위 글과 달리 <보기>는 삶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와 달리 위 글은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와 달리 위 글은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난타령

[아니리]

그때는 어느 땐고 ⓐ팔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 피 -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흥보집은 냉랭허여 곤신풍이 디리부는지라.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흥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흥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자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것다.

[ ]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북두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짚자리에 떨어칠 제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

흥보 아들 수모

[아니리]

이렇듯 울고 있을 적에, 흥보 열일곱째 아들놈이 유혈이 낭자해 가지고 울고 들어오며, "어머니! ⓒ나 송편 세 개만 해 주시오." "아니, 이놈아. 어째서 하필 떡을 세 개만 해 달라고 그러느냐?" "동리로 놀러갔다가 애들이 송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가래 속으로 기어 나오면 송편을 주마기에, 송편 얻어먹을 욕심으로,"

[중모리]

"엎져 기어 나갈 적에 뒤엣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그 뒤엣 놈 떨어져 앞에 와 서고, 담 담 놈 떨어져 앞에 와 서서, 한정 없이 기어가자 하니, 무릎이 모두 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기로 내가 욕설을 좀 하였더니, 송편일랑 고사하고 뺨만 죽게 때려 주니, 송편 세 개만 하여 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양손에 갈러 쥐고 조롱하여 가면서 먹을라요."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목이 메어 하는 말이, "내 자식아. 쯔쯔쯔쯔. 무엇하러 나갔더냐? 천하 몹쓸 애들이지. 못 먹이는 이 어미는 일촌 간장이 다 녹는데, 굶어 죽게 생긴 자식을 그리 몹시 하드란 말이냐.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불쌍한 내 새끼야, 우지를 마라."

흥보 첫째 박을 탐

[아니리] 이때 흥보는 친구 덕분에 술이 얼근히 취해 가지고, 집안을 들어와 보니 자기 마누라가 울거늘, "여보, 이게 웬일이오? 배고픈 걸 한을 해 가지고 이렇듯 울음을 우니, 부인이 울어서 우리 집안 식구가 배가 부를 지경이면, 권속대로 늘어 앉어, 한평생허고라도 울어 보지마는, 아, 남 보기 챙피만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찌 흉볼 울음을 운단 말이오? 울지 말고 우리는 있는 박이니, 박이나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목숨 보명해 살아갑시다." 흥보 내외 박을 한 통을 따다 놓고, 톱 빌려다 박을 탈 제,

[ ]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어여루, 톱질이로고나. 몸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놈의 가난이로구나.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헌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에여루 당거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시르렁 시르렁, 당거 주소, 톱질이야. 으흐어어어 시르렁 실근, 당거 주소, 톱질이야. 여보소, 마누라. 톱 소리를 맞어 주소."

"톱 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못 맞겄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여루, 당거 주소. 시르르르르르르 시르르르르르르렁 시르렁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당그여라, 톱질이야. 큰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가 팔아다가 목숨 보명허여 볼거나. 에여루, 톱질이로고나."

[휘모리]

"실건 실건, 당기어라.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건 뚝딱."

- 작자 미상 / 김연수 바디 「흥보가」

한성고등학교 (서울)

6. 위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갈등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드러난다.
② 반어법을 통해 부정적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③ 판소리 사설의 내용과 악조의 장단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④ 리듬감을 가진 운문과 산문적 진술이 섞여 나타나고 있다.
⑤ 지배 계층의 한문 투와 서민들의 비속한 표현이 뒤섞여 있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7.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 흥보네의 가난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 - 흥보 아내의 원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청중의 긴장이 이완된다.

③ ⓒ - 부모님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흥부 아들의 신중한 성격이 드러난다.

④ ⓓ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 대한 흥부 아내의 원망을 짐작할 수 있다.

⑤ ⓔ - 박을 타는 모습을 빠르게 표현하여 긴장감과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8. 다음 글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판소리 장단을 고르면?

판소리 사설에서 '창'은 심화된 정서와 의미를 다양한 음률에 실어 노래하는 부분이다. 창에는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가장 빠른 휘모리까지 다양한 장단(長短)이 있어 내용 전개나 정서적 변화에 조응한다. 진양조는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태연한 맛과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다. 자진모리는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흥분과 긴박감을 준다.

① 진양조 ② 중모리
③ 중중모리 ④ 자진모리
⑤ 휘모리

한성고등학교 (서울)

9. 위 작품을 참고하여 파악한 판소리에서의 '아니리'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청중의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②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서술한다.
③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의 대화를 전달한다.
④ 창자가 호흡을 조절하면서 다음 창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⑤ 장면을 극대화하여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양조]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어여루, 톱질이로고나. 몸쓸 놈의 팔자로구나. 원수놈의 가난이로구나. ㉠<u>어떤 사람 팔자 좋아 일대 영화 부귀헌데, 이놈의 팔자는 어이하여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u>. 에여루 당거 주소.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너라. 평생에 밥이 포한이로구나. 시르렁 시르렁, 당거 주소, 톱질이야. 으흐어어어 시르렁 실근, 당거 주소, 톱질이야. 여보소, 마누라. 톱 소리를 맞어 주소." "톱 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못 맞겄소." "배가 정 고프거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여루, 당거 주소. ㉡<u>시르르르르르르르 시르르르르르르렁 시르렁 시르렁 실건 시르렁 실건 당그여라, 톱질이야</u>. 큰자식은 저리 가고,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u>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가 팔아다가 목숨 보명허여 볼거나</u>. 에여루, 톱질이로고나."

[휘모리] "실건 실건, 당기어라. 시르렁 실건, 톱질이야. ㉣<u>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건 뚝딱.</u>"

[아니리] 박을 딱 타 노니, 박속이 텡 비었거던. 흥보 기가 막혀, "허,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속은 쏵 긁어다 먹고, 아 여, 남의 조상궤 훔쳐다 넣어 놨구나. 여." 흥보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영감. 궤 뚜껑 위에 가 뭔 글씨가 쓰여 있소, 예." 흥보 보더니, "음? '박흥보 씨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디." "아, 그러면 한번 열어 보시오." "열어 봤다가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궂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u>"영감, 우리가 시방 이 팔자보다 더 궂게야 되겄소? 근개 그냥 한번 열어 버리시오.</u>" "그러면 열어 볼까?" 흥보가 한 궤를 가만히 열고 보니, 아, 쌀이 하나 수북이 들고, 또 한 궤를 딱 열고 본깨, 거기는 그냥 돈이 하나 가뜩 들었는데, 궤 뚜껑 속에다가, 쌀은 평생을 두고 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무궁지미'라 씌었으며, 또 돈궤에도, 이 돈은 평생을 두고 꺼내서 써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지전'이라 하였거늘, 흥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떨어 붓기 시작을 하는데,

ⓑ[휘모리]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 두 짝을 떨어 붓고 닫쳐 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쌀과 돈을 떨어 붓고 닫쳐 놨다 열고 보면, 도로 하나가득하고, 툭툭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수북, 떨어 붓고 나면 도로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것다. 일년 삼백육십일을 그저 꾸역꾸역 나오니라!"

흥보 밥타령

[아니리]

어찌 떨어 부어 놨던지 돈이 일만 구만 냥이요, 쌀이 일만 구만 석이나 되던가 보더라. "자, 우리가 쌀 본 김에 밥부터 좀 해 먹고 궤짝을 떨어 붓든지 박을 타든지 해 봅시다. 우리 권속이 모두 몇이냐? 자식놈들 스물아홉, 우리 내외 도통 합이 서른한 명이로구나. 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분석 정리

● 제재 연구

갈래	중편 소설, 심리 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배경	• 시간적 – 1930년대의 어느 하루 • 공간적 – 경성(서울) 시내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성격	심리적, 사색적, 관찰적
제재	1930년대 경성거리의 일상사 /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생활
주제	1930년대를 사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내면 의식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
특징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 • 몽타주 기법의 활용, 잦은 쉼표의 사용,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의 활용 등 실험성을 가미함. • 1930년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함. • 하루에 걸쳐 원점으로 회귀하는 여로 형식을 취함.

1. 이 작품에 사용된 모더니즘 기법들

의식의 흐름	• 일반적인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심의 인과적이고 통일된 서술과 달리,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함. •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 • 등장인물이 보고 들은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룸.
몽타주 기법	•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함. •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내면 의식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르게 됨. •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게 함.
고현학적 창작 기법	•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풍속을 조사·기록하여 탐구하고 창작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시정의 풍속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세태 소설의 입지를 다짐. •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이 기법은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루게 된다.

2. 서술상의 특징

소설은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새벽 2시경에 귀가하기까지 하루 동안의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경로에 따른 서술자의 관찰 내용과 심리가 서술되어 있으며,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내면 의식을 의식의 흐름, 몽타주 등의 모더니즘 기법을 활용하여 포착하고 있다.

관찰
당대의 세태와 풍속, 도시의 사소한 풍경들, 주변 인물들의 모습

+

내면 의식
자신에게 결여된 '일상적인 행복'과 지식인의 '고독'

3. 문체상의 특징

만연체 문장		쉼표의 빈번한 사용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인 조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	+	긴 문장을 끊어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함.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나게 함.
•일제 강점하에서 돌파구가 없었던 지식인들의 고독,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냄.

4. 구보의 인물 유형

구보	26세의 소설가. 작가의 분신.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근대적 지식인임에도 무위도식하는 무기력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편, 소설가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일반인을 속물로 치부하는 인물. 예술가로서의 삶과 일상적인 삶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며 도시를 배회하고 고독을 느끼는 무기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	⇨	식민지 지식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고뇌, 회의감이 투영됨.

4. '황금광 시대'에 대한 작가의 생각

구보가 바라본 1930년대의 세태는 그야말로 '황금광 시대'이다. 1930년대는 일본의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용으로 금광 채굴이 일제의 장려 속에 급격히 성행하였는데, 구보는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좇아 사람들이 금광 채굴에 몰두하는 당대 식민지의 이상 열풍을 '황금광 시대'에 빗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일상적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자본주의 문화의 속성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사회에서 도시화는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생활 방식은 붕괴되어 갔다. 서서히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로 작가는 황금 열기를 택한 것이다.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는 이제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 작가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자조적 문체를 사용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학습 활동

1.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당시의 전차 노선을 그린 것이다. 여정에 따라 구보가 관찰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관한 구보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자.

	구보가 관찰한 대상	대상에 관한 구보의 생각과 느낌
①	젊은 내외와 아이	업신여기려다가 부러움을 느낌.
②	그 색시	시선을 마주칠까 겁을 내며 소극적으로 대처함. 시야에서 멀어지자 알은체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함.
③	노파와 시골 신사	늙고 쇠잔한 노파의 굳어버린 표정과 몽롱한 눈에 대해 생각함.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노파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 그를 속물이라 생각하고 업신여김.
	바세도우씨병 환자와 근처의 사람들	병을 앓고 있어 불결한 느낌을 주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하기를 꺼린다고 느낌.
	양복 입은 사내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모습을 보고 우울해짐.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사내	무직자로, 금광 중개상일 것이라고 확신함.
	중학 시절의 벗과 그의 애인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벗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함. 불쾌감과 무시하고픈 마음이 들었음. 그의 뒤를 따르는 여인은 속물적인 벗의 재력 때문에 만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함
	음료 칼피스	외설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를 통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성격, 교양, 취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음료가 그들의 기분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생각함.

2. 구보가 교외에 나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고 한 까닭을, 고독에 관한 그의 태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교외에는 구보가 요사이 두려워하는 고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구보는 고독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것은 한없이 무서운 고독에게 굴복하고서 고독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속여 온 것일 뿐으로, 구보는 고독이 두려워 교외를 즐기지 않는 것이다

3.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특성을 이해해 보자.

> 박태원은 이태준, 김기림, 정지용 등이 주도한 구인회(九人會)에 이상과 함께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1934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발표하며 당대 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른다. 옆구리에 대학 노트를 끼고 근대화가 진행 중인 경성 도심의 거리를 하릴없이 떠돌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이 하루 동안의 얘기는 작가 박태원의 일기이자, 당대에 살던 무력한 지식인들의 일일 보고서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은 독특한 근대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무료하게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작가가 스케치하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근대 문명이 가져온 야릇한 새로움과 함께, 그 이면에 스치는 ㉡현대인의 소외된 심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
>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에서

(1)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부분의 소설들과 비교하면서 ㉠에 관해 설명해 보자.

뚜렷한 사건의 인과적 배열을 전개의 기본 원리로 삼는 일반적인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은 그저 도시를 산책하듯 배회하는 주인공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관찰하고 생각한 것들에 관해 한 컷 한 컷 삽화처럼 나열하듯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이 작품에서 ㉡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파악해 보자.

이 소설에 그려진 화려하고 근대화된 서울 풍경의 한쪽에는 어디에 가서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몰라 헤매면서 도시의 여기저기를 무작정 배회하는 구보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지식인의 고독과 무력감, 현대인의 소외감을 나타내고 있다.

4. 다음은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경성역 개찰구 앞에서 구보가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쉰 까닭을 추측해 보자.

> 역사적 관점에서 '황금광 시대'의 황금 열기가 일제의 금 수탈 정책으로 조작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삼림이든 논이든 콩밭이든 조선의 땅은 금을 찾기 위해 여지없이 파헤쳐졌고, 그렇게 발견된 금들은 대부분 일본 은행 금 비축고로 갔다. 그리고 1930년대 대규모 금광들은 대부분 일본 재벌의 소유였고, 헐벗고 굶주린 대다수의 광부들은 평생 일확천금을 꿈꾸다 늙어 갔다.
>
> 금광 주변의 수많은 인간 군상 중에는 금광 중개 상인들도 있었다.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주로 가난한 지식인이었던 그들은 연장을 잡고 광맥을 파는 대신, 금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 의미를 일방적으로 폄하할 수만은 없지만, 그들이 다루는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도 일탈의 유혹이 많았고, 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
>
> - 전봉관, 『1930년대 금광 풍경과 '황금광 시대'의 문학』에서

▲ 1890년대 후반부터 알려져 전국에서 광부들이 몰려든 직산 금광

대합실 안팎을 둘러보자 여기저기에 금광 브로커들이 눈에 띄는 것을 보며 구보는 조선 국토의 칠 할이 금광인 현실을 떠올린다. 순수 학문을 하는 문인들까지 달려든 황금광 시대는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황금광 시대'는 일본 정부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고 대다수 조선인들은 희생양에 불과했으며 금광 브로커들은 정도를 벗어나는 일도 잦았다. 이처럼 부정적인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며 구보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내쉰 것이다.

5. 다음은「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이상의 소설「날개」의 일부이다. 작품의 소재와 배경, 세계에 대한 인물의 태도 등의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해 보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대로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헤아려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어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 이상,「날개」에서

소재와 배경	두 작품 모두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근대 경성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전차나 자동차, 커피 같은 소재가 활용되었고 경성역이나 백화점 같은 공간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세계에 관한 인물의 태도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구보처럼「날개」의 '나'도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방황하면서 고독과 무기력을 느끼고 도시와 도시인의 모습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읽기 [illegible]

1. 구보가 종로 네거리로 향하는 이유로 볼 때, 지금 구보가 집을 나서 거리를 걷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 구보가 그리로 향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을 나서 거리를 걷는 데도 아무런 목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구보는 전차 정거장에 있던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가?구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 곳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차 전거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전차를 기다린다. 그러나 구보 자신은 우연히 전차 정거장에 와 서 있을 뿐이고 딱히 목적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3. 전차 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일종의 '산책자'로서 세상의 모습을 구경하는 구보에게 전차 안의 풍경 역시 관찰과 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4. 구보가 한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란 까닭은 무엇일까?
어머니에게 '그 색시'를 만났다고 말하면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뒤를 캐어 물을 거라고 상상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여성은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바랄 듯한, 구보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여성일 것이다. 그런 여성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므로 신기하게 놀란 것이다.

5. 구보가 경성역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남대문에서 지게꾼들의 맥없는 모양을 보고 고독을 느꼈기 때문에,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인 경성역에 가서 고독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6. 구보가 '대학 노트'를 편 목적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대학 노트에 기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그것을 소설화하려는 소설가로서의 본능과도 같은 행동으로, 이 작품의 고현학적 창작 기법과도 관련이 깊다.

7. 구보가 당시의 세태에 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구보는 당시가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황금광 시대이자,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중학 동창도 연애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는 구보가 당시의 물질주의적 세태에 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제도병(Basedow 病).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송도고등학교 (인천)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②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③ 주인공의 행위나 사고가 필연적 계기 없이 서술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갈등과 서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
⑤ 주인공의 눈을 통해 관찰된 내용들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송도고등학교 (인천)

2. 윗글의 밑줄 친 ㉠ ~ ㉤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⑤ ㉤

송도고등학교 (인천)

3. ⓐ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① 그곳에는 삶의 철학이 있을 것이다.
② 그곳에는 활기찬 삶이 있을 것이다.
③ 그곳에는 삶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④ 그곳에는 고독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⑤ 그곳에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송도고등학교 (인천)

4. ⓑ와 같이 이 작품에서는 '병'에 대한 서술이 여러 번 나온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① 자본주의의 부정적 속성
② 불결한 도시 환경의 심각성
③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안
④ 사회 복지 제도의 필요성 강조
⑤ 당대 도시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폐성

송도고등학교 (인천)

5. 위 작품의 모더니즘 소설로서의 특징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조건>
- 핵심어를 사용하여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할 것.
- 1930년대 모더니즘과 관련이 있어야 함.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개찰구 앞에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射倖心),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ㅡ.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口實)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 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선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나)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뜩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오월 햇살에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효를 세어 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어리가 따뜻하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간을 이동하며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②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주목하게 한다.

③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인과적 사건을 배열하여 그 추이(推移)를 보여 준다.

⑤ 문두(文頭)를 끊어 소제목으로 제시한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7. ⓐ ~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드난 :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살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줌. 또는 그런 사람.

② ⓑ 부종 (浮腫) : 심장병·신장병에 걸리거나, 어느 국부의 혈액 순환에 탈이 나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병.

③ ⓒ 팽륭(澎隆) : 크게 부어오름.

④ ⓓ 사행심(射倖心) :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

⑤ ⓔ 구실(口實) :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맡은 바 책임.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근대 경성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② 뚜렷한 목적지를 갖지 못한 인물의 고독을 보여준다.

③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당대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기존의 리얼리즘과 합리적인 기성도덕, 전통적인 신념 등을 부정하면서 등장한 문예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9. ㉠과 ㉡에 대한 구보의 반응이 지닌 의미를 쓰라.

<조건>
시대상과 태도 모두 드러내어 기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 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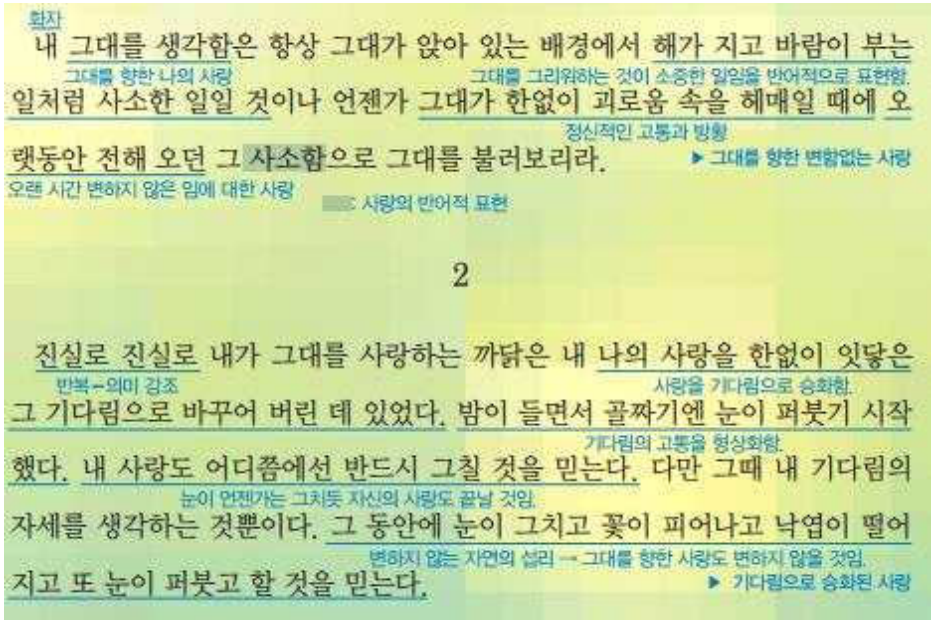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 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륭(澎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우'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즐거운 편지" 분석 정리



● 제재 연구

갈래	산문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고백적, 사색적
주제	사랑의 간절함과 불변성에 대한 고백
특징	•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함. • 사랑의 감정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

1. 제목 '즐거운 편지'의 해석

반어로 보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그대'에게 화자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편지는 '즐겁지 않은 편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편지'라는 반어적 표현의 제목을 통해 기다림의 고통을 반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어로 보지 않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이루기 어려운 사랑의 고통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기약 없는 기다림의 고통마저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인식

시에서 화자는 '그대'에 대한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다. 사실 화자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내리고 있는 눈과 같아서 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그치고 말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딪치게 될 사랑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순간의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기다림의 감정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변함없음, 즉 영속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화자는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기다림은 실상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눈 내리는 계절을 지나오면서 이루어 낸 기다림의 자세는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다. 이처럼 기다림은 시 속에서 화자의 사랑의 애절함을 보여 주는 것인 동시에,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이 작품의 반어적 표현

사랑의 사소함	화자는 자신이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자연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사소한 일'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유한함	화자는 '골짜기에 퍼붓는 눈'이 언젠가는 그치듯 '그대'를 향한 자신의 사랑도 언젠 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을 이어서 제시함으로써 기다림으로 승화된 자신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반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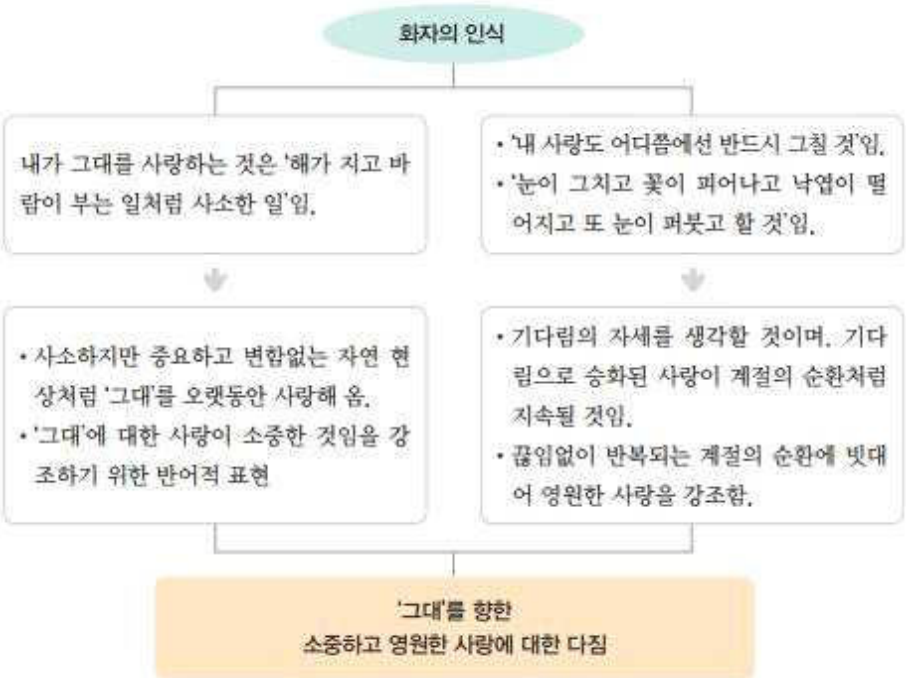
⇩

간절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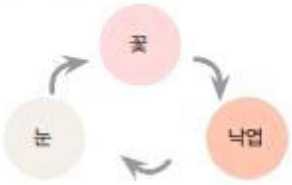
● **제목이 '즐거운 편지'인 이유**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써 내려가야 하는 편지가 결코 즐거울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고통스러운 사랑을 '그대'를 위해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놓음으로써, '그대'에 대한 고통스러운 사랑마저도 '즐거운'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



● 계절의 순환성이 지닌 의미 – '눈', '꽃', '낙엽'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이지만, 계절이 순환하며 지속되는 것처럼 '내 사랑'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자 함.

● 표현상 특징

시어, 문장 구조의 반복	'그대' 등의 시어와 '~을 믿는다.' 등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반어	'즐거운 편지', '사소한 일' 등의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함.
비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등에서 자신의 사랑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함.

"[redacted]" [redacted]

1.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구 '사소한 일'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

'사소한 일'의 의미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오래된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은 흔하고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반어적으로 무엇보다 영속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사랑을 '사소한 일'이라고 한 까닭	화자는 자신의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보잘것없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2. 이 작품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기다림의 자세'에 관한 자기 생각을, 그 까닭과 함께 말해 보자.

나는 공감할 수 있어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사랑을 버리는 시대에 화자가 말하는 기다림의 자세는 포용력을 지닌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랑을 순간적으로 소비되는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는 것이므로,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나는 공감하기 어려워.
그 까닭은

화자가 보여 주는 기다림의 자세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이 바라는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3. 이 작품의 제목을 반어로 보았을 때와 반어로 보지 않았을 때, 작품 수용상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반어로 보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그대'에게 화자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편지는 '즐겁지 않은 편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즐거운 편지'라는 반어적 표현의 제목을 통해 기다림의 고통을 반어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그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어로 보지 않았을 때	'즐거운 편지'는 이루기 어려운 사랑의 고통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이루기 어려운 사랑마저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은 이 작품을 쓴 시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서정의 세계를 노래하는 시인, 황동규

「즐거운 편지」는 고등학교 졸업 때 교지에 실린 작품입니다. 짝사랑하던 연상의 여인을 대상으로 썼죠. [중략] 이건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없던 연애시입니다. 남녀가 일생동안 서로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한번 주어진 사랑의 본질 때문에 일생을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즐거운 편지」의 초점입니다. 첫 마디는 역설이고 반어법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가시난 닷도셔 오쇼셔.'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마디에 가서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라는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도 언젠가 끝날 수 있다는 조건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여인은 「즐거운 편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 이 작품의 일부 시구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감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	내 사랑은 언제나 영원할 것을 믿는다.

5. 다음은 첫사랑에 관해 노래한 시이다. 「즐거운 편지」와 비교하며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1) '사랑'과 관련하여 위 작품과 「즐거운 편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즐거운 편지」의 화자는 오랜 기다림을 다짐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인내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첫사랑」의 '눈'은 자신의 첫사랑을 위해 그저 기다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고, '난분분 난분분' 춤도 추고, 미끄러지기도 하며 그렇게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두 시에 나타난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한성고등학교 (서울)

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태도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행을 구분하지 않은 산문체의 형식으로 화자의 어조를 드러낸다.
③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④ 영원한 자연에 대비되는 사랑의 유한성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⑤ 자연 현상에 빗대어 자신의 사랑이 지닌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성고등학교 (서울)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② ㉡ : 반복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
③ ㉢ : 화자의 사랑이 더 큰 포용력을 지닌 기다림으로 승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 : 화자의 사랑도 언젠가 끝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⑤ ㉤ : 계절의 순환처럼 화자의 그리움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3.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백적, 사색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②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추상적인 개념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있다.
④ 비장한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⑤ 진심과는 다른 말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4.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창(窓)밧긔 워셕버셕 님이신가 이러 보니 //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에 낙엽(落葉)은 무스 일고 // 어즈버 유한한 간장(肝腸)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 신흠, <방옹시여(放翁詩餘)>

② 내 일 망령된 줄 내라 하여 모를쏜가 // 이 마음 어리기도 임위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③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랴마는 //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④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넨가 하노라.

- 이신의 <단가육장(短歌六章)>

⑤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한광여자고등학교 (경기)

5. 위 시의 ㉠과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하는 시간이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하도록 하는 시간이다.
③ ㉠과 달리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④ ㉠과 달리 ㉡은 화자의 시련에 대처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시간이다.
⑤ ㉡과 달리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주는 시간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6.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아침저녁으로 샛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여공'

②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 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 신석정, '임께서 부르시면'

③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청(靑)무우 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④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김소월, '초혼'

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 이은상, '가고파'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의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공간을 지향함으로써 고통을 이겨내려고 한다.
② 세속적인 괴로움을 자연에서의 평온한 삶을 통해 이겨내고자 한다.
③ 적극적인 태도와 격정적인 사랑을 통해 삶의 무상감을 이겨내려고 한다.
④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상황에 맞서려고 한다.
⑤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기다림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혜원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화자의 사랑을 자연 현상에 빗대어 (나)와는 달리 산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연현상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2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종, 「첫사랑」 -

영동고등학교 (서울)

9.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점층적으로 그리고 있다.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적 대상에 대해 예찬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영동고등학교 (서울)

10. (가), (나)와 <보기>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까부터 노을은 오고 있었다.
내가 만약 달이 된다면
지금 그 사람의 창가에도
아마 몇 줄기는 내려지겠지

사랑하기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숲속의 외딴집 하나
거기 초록빛의 구구구

2.① 산도화

1.① 2.④ 3.⑤ 4.④ 5.② 6.② 7.⑤ 8.이 시는 여백의 함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자연의 풍경을 인상적인 몇 장면으로 구현하여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9.① 10.② 11.① 12.① 13.④ 14.① 15.④ 16.④ 17.④ 18.⑤ 19.⑤ 20.④ 21.(1) 많은 자연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자연만을 그려 여백을 통해 정취를 자아낸다. 절제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시형을 구성하여 여백의 미를 드러낸다. (2) 이 시에서는 산의 속성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며 진술되는데 이는 수직의 위태로움으로부터 점차 수평의 안정을 회복해 가는 하산의 과정에 대응된다. 22.③ 23.③ 24.① 25.③ 26.② 27.③ 28.⑤ 29.㉠: ⓐ, ⓑ, ㉡: ⓒ, ⓓ 30.④ 31.② 32.④ 33.②

2.② 흥보가

1.(1) 흥보가 밥을 해서 산더미처럼 쌓는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한다. (2) 청중의 긴장이 ⓐ에서 이완된다. 2.③ 3.④ 4.⑤ 5.② 6.② 7.⑤ 8.① 9.⑤ 10.① 11.② 12.⑤ 13.⑤ 14.② 15.과장법으로 늘 굶주리며 지내다 많은 밥을 보고 흥분한 자식들이 밥 속으로 파고 들었다고 하며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6.① 17.⑤ 18.① 19.② 20.① 21.② 22.⑤ 23.①② 24.③ 25.① 26.④ 27.① 28.④ 29.④ 30.⑤ 31.① 32.③ 33.⑤ 34.④ 35.① 36.③ 37.⑤ 38.④ 39.(가)의 인물들은 가난한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한탄하고 있고, (나)의 인물들은 연민과 이해,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로 가난한 삶의 애환을 이겨내고자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40.① 41.① 42.④ 43.휘모리, 흥보가 박을 타는 상황에 대한 상황에 긴박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해 기대감과 흥미를 고조시킨다.

2.③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1.④ 2.④ 3.② 4.⑤ 5.구보의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었다. 한 시점 동안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하는 몽타주 기법, 잦은 쉼표 등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1930년대 황금광 시대의 도시의 자본주의적 속성을 드러낸다 6.④ 7.⑤ 8.③ 9.물질주의에 물든 세태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⑤ 11.④ 12.⑤ 13.④ 14.① 15.구보는 재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 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④ 17.⑤ 18.② 19.⑤ 20.㉠ 황금광 시대 ㉡ 서정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21.② 22.⑤ 23.⑤ 24.① 25.④ 26.① 27.⑤ 28.② 29.④ 30.④ 31.② 32.④ 33.④ 34.④

2.④ 슬거운 편지

1.④ 2.① 3.④ 4.① 5.① 6.① 7.⑤ 8.② 9.② 10.② 11.⑤ 12.ⓐ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일 ⓒ 소중한 일 13.④ 14.기다림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대를 기다리는 변함없는 사랑 15.③ 16.① 17.⑤ 18.⑤ 19.① 20.화자의 기다림은 계절의 순환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21.⑤ 22.③ 23.② 24.② 25.① 26.③ 27.②③ 28.⑤ 29.① 30.③ 31.① 32.② 33.ⓐ 기다림 ⓑ 황홀 34.(1) 흰 바람벽 (2) ⓐ 자연 현상 ⓑ 사소한 일 35.② 36.③ 37.① 38.④

2.⑤ 로디지아발 기차

1.② 2.⑤

2.⑥ 허생전

1.① 2.⑤ 3.③ 4.허생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책 읽기에만 몰두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5.⑤ 6.③ 7.③ 8.① 9.④ 10.(1)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2) 번오기, 무령왕 11.④ 12.⑤ 13.⑤ 14.③ 15.⑤ 16.① 17.④ 18.④ 19.'허 생은 간 곳이 없었다.'라고 개방적 결말 방식을 사용하여 암시와 여운을 남김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한 설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허 생의 이인다운 면모를 부각한다. 20.⑤ 21.② 22.④ 23.⑤ 24.④ 25.① 26.③ 27.② 28.⑤ 29.(나)의 '허생의 처'는 허생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가)의 '허생의 처'는 가장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남편과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0.③ 31.② 32.④ 33.② 34.㉠ 허례허식 ㉡ 북벌론 35.③ 36.② 37.④ 38.허생은 조선의 경제구조가 취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2.⑦ 남한산성

1.⑤ 2.② 3.① 4.(1) 김상헌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뜻이다. (2) 호구 5.② 6.③ 7.⑤ 8.③ 9.⑤ 10.③

1.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①

▶'복숭아나무'나 '숲' 등 특정 대상에 대한 성찰의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성찰에 대해 알아보자! (★★)

1) '부끄러움', '후회' 등의 심리 상태는 <반성적> 혹은 <성찰적 태도>와 관련 있다.
2) 대개 화자의 반성, 성찰, 깨달음 등을 통해 <교훈>을 이끌어 낸다.
3)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4) <성찰>을 대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뿐만 아니라, 넓게는 어떤 일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고 고민하는 것도 포함한다.

2. 문학 배경의 종류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2.⑤

▶공간의 이동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정서적 거리(심리적 거리) (★★★):

주로 시에서 시적 화자의 대상(자연물 등)을 바라보는 태도(마음, 정서)와 관련됨.

ㄱ.가까운 경우: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봄
(화자의 감정 이입, 동화, 공감, 친화, 우호, 연민)
ㄴ.먼 경우: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로 바라봄
(사실적 표현, 관찰, 관조, 이질감, 냉정, 비판, 편집자적 논평, 거리감, 괴리)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논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②

▶'간격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거친 후, 화자의 내면의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엉금엉금, 슬금슬금)

5.⑤

ㄱ: 생명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건 아님. ㄷ: 대상에 본질을 아는 것이지 친밀감을 갖는 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2.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화자의 감정 상태: 격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3.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6.③
▶㉢은 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냄.

7.②
▶(가)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없음.

8.②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갛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9.④
▶[D]는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임을 나타냄.

11.②
▶화자 자신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지, 강인한 복숭아나무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12.①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에서의 '대화' (★★)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하는 화법의 대화와는 다르게, 시에서는 직접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를 의식하고 부르거나 건네는 말만 있어도 독백체가 아닌 <대화체>로 본다.

13.④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 하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의 느낌임.

15.②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표현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16.③
▶연대감과 딸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이 (나)에서 말하는 적당한 간격임.

17.④
▶(가)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공감으로 인식 변화가, (나)는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다는 것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즉 간격과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루는 인식의 변화가 있음.

▶응, 헛갈리지 마!◀

사물 vs 자연물
*사물: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시의 전개 방식 (★)
ㄱ.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ㄴ.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ㄷ.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ㄹ.대립적 전개
ㅁ.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ㅂ.선경후정: 경치+정서
ㅅ.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18.③
ㄷ: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건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